

2022년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2차)

《 2022. 10. 20.(목) 13:00~15:50, 재난안전상황실 》

(기획팀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 때 언급된 운영위원회 결성 시 금지사항과 관련하여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이 상의함에도 자치단체의 평균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금지되고 타 지자체와의 비교 자체는 금지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부산시 구·군 월정수당 활동 동향 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총 열 분의 위원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번호 제4호 「2023년 월정수당 지급 금액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10월 5일 1차 회의 이후 2주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삭감·동결·인상안에 대해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바로 표결하기 전에 일단 조금 논의나 의견들을 좀 개진하고 표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분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그럼 의견을 들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앞전에 10월 5일 1차 회의 때 말씀하신 의견이 있을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안을 제시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없으시면 제가 먼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바로 당일날 회의장에서 자료를 좀 검토해서 충분한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으로 없어서, 일단 저희가 의정활동비 결정사항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5페이지에 있는 기준들인데요 중요한 게 재정능력도 있고 의정활동 실적 부분

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일단 페이지 21쪽입니다 주요 의원발의 제정조례들을 검토를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 최초 조례라는 추천하신 4개 조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73번 같은 경우는 확인 결과 추가가 된 거고 최초라고 하기는 힘들고 타구에 존재하는 조례인 것이 서로 확인됐구요.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에 이륜자동차, 자전거 이렇게 추가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특이한 조례는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사자가 계신데 이 운영 조례안이 좀 특이한 조례, 유의미한 조례라고 제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위원님이 와 계신데 이 조례 만들고 나서 여기에 근거한 공론화 위원회나 해서 회의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례들이 있습니까 혹시?

(○○○ 위원) 예. 오늘

(○○○ 위원)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돼서요.

(○○○ 위원) 오늘 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2021년 11월달에 조례를 대표 발의했구요. 이 조례의 첫째 타겟을 어디에 뒀었냐면 우리 북구의 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심의위원회에서는 1순위로 덕천초등학교가 제안이 됐는데 학교 동창회, 학부모 이런 데서 반발이 많아서 공론화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에서 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선거기간하고 같이 걸리다 보니까 이 회의를 전혀 개최할 수 없었구요. 민선 8대에서 이런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는 부분은 공론화 조례를 통해서 서로 공론화해서 어떤 좋은 대안들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난 8대에서는 없었지만 다음에 계기가 될 수 있는 조례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페이지 19쪽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보니까 북구 의원 발의가 139건이었습니다. 지난 8대 의정 활동에서요. 총 회기일수는 평균 매년 한 100회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위원회 회의를 가면 회의비 지급 기준이 구나 시는 좀 다르지만 1시간 반 이하는 시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구는 한 7만원, 8만원 이렇게 되고요. 2시간 이후는 15만원 정도 위원회 회비를 지급하는 게 기준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총 회기일수를 보면 대략 이걸 그냥 계산상의 문제입니다. 한 해에 보통 17명 정도의 의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이러면 지금 활동비하고 이렇게 해서 연봉으로 치면 한 4천만원이 넘거든요. 100회 한다고 치면 한 번 회기 때 보통 한 40만원 정도 계산이, 기준이, 지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

원 출석률이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그 정도로 지급되고 있더라 한번 회의 때. 그리고 안건 처리 실적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은 의원 발의안 조례 같은 경우는 부결이 딱 두 건이 있었고 전부 다 통과합니다. 부결이 없고 웬만하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전에 회의가 시작되면 예산이라든지 중요한 거 아니면 보통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그냥 절차상 통과의례로 통과가 되고 최초 조례라고 제가 말씀을 소개 좀 드렸지만 나머지 조례들은 대다수 지자체에 다 있는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들이에요. 있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큰 노력과 발품이 없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컨트롤C, 컨트롤V 하면 되는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원 발의와 단체장 제출을 비교를 해보면 지난 8대에서 단체장이 몇 배로 제출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 발의는 열일곱분이 하셔야 되는데 평균만 나눠 보면 6개월에 한 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고 단체장들은 이렇게 제출한 거 보면 두 배에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의원 발의들이 보면 이전에는 좀 없었어요. 그런데 21년도 돼서 좀 많이 횡수가 늘었습니다. 제가 볼 때 21년도 되면 공천 심사가 있고 하니까 뭔가 좀 실적도 있고 조례 발표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양적으로 늘어난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회기 일수와 회의비 지급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이렇게 보면 이 40만원이라는 기준이 결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것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인 어떤 조례 활동, 다른 안건 심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과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예

(○○○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의정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생각 잘 되었던 부분들, 지적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할 요소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첫날 와서 많은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신규로 북구의회에 임명이 된 그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9대 북구의회의원 명단을 살펴보니 전체 14명 중에서 기존의 직을 그대로 해서 연임이 되신 분들은 한 네 분 정도 계시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교체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70% 정도가 교체가 되고 신규 의원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일전에 있었던 의정 상황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내용들에 대해서 그걸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타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선거 때 반영이 된 겁니다. 선거 때 반영이 되어서 기존에 있었던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 이

런 부분이 다 정리가 돼서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고 바라는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에게 이전의 법을 지워가지고 다시 어떤 저희들의 개념이라든지 의정비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정 시 고려사항이 의정 활동 실적이 재정능력하고 중요한 판단 근거구요. 이게 지금 제도적인 모순점인데. 그러면 이제 신규로 하시는 의원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수를 정할 것인가.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게 그냥 4년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심의라든 점점 절차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한번 우왕좌왕하면서 한번 소집돼서 이게 그냥 결정되는 그래서 연례적으로 그냥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대략 분위기가 그렇게 공론화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만 된다는 뜻이죠. 원래 무료로 해서 봉사직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던 제도인데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인상만 되고. 실제로 조례를 생산하거나 그 비교를 하면 지난번 저희가 이제 좋은 정책상을 할 때는 여기 집행부에 그 한 두 건 정도의 좋은 정책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요. 심사를 해서. 그런데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아까 공론화 조례를 통해서 뭔가 어떤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북구의 중요한 현안들이 뭐였습니까 북구청 이전 문제라든지 구포시장 개시장 문제도 있고 등등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북구 이름 개명한다든지 굵직굵직한 것들은 전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미완인 채로 지금 넘어와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런 점을 저는 이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4년을 결정하고 다음 회기 때 또 반영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제가 볼 때는 통상적인 중요한 회의의 자리라는 것이, 다른 지자체의 어떤 경향을 떠나서 그 중요성을 저는 좀 인식을 해야 되는 회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네.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의회 의원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조례 목록을 보면 앞전에 분들이 한 것이 올라 있고 그래서 신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못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이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새로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4년 전에는 동결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는 삭감 쪽으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해보니까 너무 또 삭감쪽으로 가면 안 그렇겠나해서 오늘 참고자료가 지금 배부가 돼있을 겁니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16개 구·군의 현황을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뢰를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 위

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다음분

(○○○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금방 ○○○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 구의원이 되신 분들 지금 평가하는 것은 활동을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지난 8대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논의할 수밖에 없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월정수당을 정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료를 보니까 월정수당을 정하는 기준이 네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의원 1인당 주민 수,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오늘 자료를 주시니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나 구민들의 숫자에 비해서 지금의 월정 수당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지 않나요? 해운대구와 같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좋은데도 271만9천원인데 우리가 236만2천원이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원 1인당 주민 감소 수가 지금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1.1%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는 마이너스 2.85%. 지난 번 1차 회의 때 증액이 아닌 감액과 동결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3가지 안입니다. 인상

(○○○ 위원) 자료 한번 보시죠. 증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팀장) 마지막 부분에 인상도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분은 없습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고 먼저 그러면 우리 삭감, 동결, 인상안에 대해서 3가지 안입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3가지 안을 제안받아서 거수라든지 무기명이라든지 여러 번 해도 결정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3개안 중에서 최고 작은 숫자 안은 제외하고 2개안만 가지고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상위 2개안만

(위원장) 예. 상위 2개안만 가지고 최하위 빼고.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상위 2개안을 먼저 정하고 제일 작은 하위안은 제외하고 2개안만을 가지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거수로 할까요? 그럼 거수로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번에 보니까 사실 보는 앞에서 서로 거수로 하다 보니까 모양새도 이상하고 해서 아무래도 의회도 있고 관련있고

해서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나중에 표결할 때 그때는 무기명으로 해서 각자 제출해서 정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예, 동의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일단 이 안에 대해서 먼저 삭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4명 거수) 그 다음 동결에 찬성하시는 분(1명 거수) 그 다음 인상안에 찬성하시는 분(5명 거수) 그럼 삭감, 동결, 인상 3가지 안에 대해서 동결은 1명으로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삭감과 인상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안 삭감, 2안 동결은 제외, 3안 인상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인상하면 몇 퍼센트 인상을 하는지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아니, 먼저 하구요. 현재 올라오는 1.4% 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을 한 것이 거든요. 1.4%. 그 안이 제출되어있죠?

(기획팀장) 아닙니다. 안을 제시해야

(위원장)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되면 1.4%도 있고 10%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안을 받아 퍼센트를 정합니다. 바로 5%, 10%해서는

(○○○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상안에 5명이 나오면 투표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기명으로 하면 동결했던 분들이 인상안에 가면 인상안이 통과가 되는건데 인상안이 통과돼도 몇 퍼센트 인상할건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보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투표가 들어가야지 인상안도 하나도 정해지지도 안했고 다른 것도 제시 안 했는데 그 두 개를 먼저 결정을 하자면 좀 그렇지 않나요?

(○○○ 위원) 거꾸로 얘기하자면 오히려 인상을 할 것도 결정이 되지 않고 감소를 할 것도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감소를 몇 프로할 것이다, 인상을 몇 프로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의결 위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큰 줄기를 고르신 다음에 감소를 한 다음에 몇 프로를 지정하고 증가를 한다면 몇 프로를 증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너무 많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경험

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아니 표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의견이나 한번 나눠보고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인상하시는 분들이 대충 몇 % 정도 생각하시는지만 말씀해주시고 표결은 인상, 인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상하시는 분들이 1.4% 이상 혹시 초과해서 인상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 위원님 말씀이 구의원님들이 열 분 정도로 바뀌셨고 또 앞전에 하셨던 구의원님 평가를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월정 수당 다른 구의 것을 제 나름대로 아는 분들에게 전화로 한번 여쭙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현황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가 재정난은 어렵겠지만 새로하시는 구의원님들한테 그래도 좌절감보다 새로 조금 힘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다른 구와 비슷하게 1.4% 정도는 인상을 해 주시면 그 분들이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적정성을 맞춰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1.4%요? 예. 다음분

(○○○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부분은 ○○○ 위원님과 ○○○ 위원님은 9대 의원들이 새로 시작하니까 앞의 잘잘못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제가 봤던 거는 재정자립도 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2년도 기준으로 지금 16개 구군 중에 꼴지 바로 앞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른 데 참고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대부분 인상을 했고 1.4% 인상도 있고 또 몇 개는 그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좀 재정자립도가 정말 안 좋은 데도 이렇게 올리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주민들이 사실 구의원 되시는 거거든요. 저도 10년 넘게 여기 북구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고 이제 내가 의원이 됐다고 세금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 먹는 게 아니고 저는 봉사하는 정신으로 의원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그거를 어떤 위축이라든가 어떤 좌절감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한다는 뜻에서 좀 더 그렇게 방점을 두시는 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사는 게 자랑은 아닌데 그걸 조금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안면 받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많이 하시는 곳이 있는데

직업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도 한번 나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한 번 정해지면 4년 내내 다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기보다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그렇습니다.

(○○○ 위원) 저도 동감하는데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에 ○○○ 위원장님 계신데 구의원들 다 이웃입니다. 다 아는 분들이고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 번 정해지면 4년 동안 가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이라고 하면서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조금만 고민하면서 이것을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지난 8대 때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비교해온 것도 있는데 이것은 말을 안 할게요. 구의원들 조례건수가 부산시 평균이 연 2.6건인데요. 우리 북구 의원님들은 1.53건으로 평균보다 조금 못 미쳐요. 사실은, 전국 226개 기초의원 조례 발의 평균이, 전국의 연 평균이 2.05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8대 때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그러니까 그건 빼놓더라도.

지금 사실은 경기 침체로 고물가에다가 고통을 다 분담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구의원님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1인당 주민들 감소 숫자가 8월 말로 보면 1.1%거든요. 1.1%.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마이너스 2.85%. 이 두 개를 합쳐 보면 3.95%가 나옵니다. 3.95%인데 거기에 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4%입니다. 3.95%에서 1.4%를 빼니까 마이너스 2.55% 나와요. 거기다가 구의원님들 업무 강도를 한번 생각해서 근무강도를 9대 때 한번 넣어보니까 지금 이제 9대부터는 의원 보좌관 제도가 이제 완벽하게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의원 두 명당 보좌관이 한 명인가 이제 붙어서 이제 연설문까지 작성을 다 해주는 의원 보좌관 제도가 이제 9대 때는 완벽하게 실시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근무 강도는 8대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의원님들의 어떤 근무 강도에 대한 플러스 점수를 줄 만한 것을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계산법에 의하면 의원 1인당 주민 감소한 1.1%에 재정자립도 마이너스 2.85%를 더해서 3.95%에 공무원 봉급은 올랐습니다. 빼줘서 나온 게 2.55%. 이 정도는 우리가 감액을 해야 9대 때 의원님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뭔가 좀 심사숙고했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월 한 7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재정자립도도 이 정도로 현저히 낮고 의원님들한테도 우리가 당연히 그냥 공무원 봉급만큼 올려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는 것은 이걸 맞지 않다고 보고,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북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제 살 먹기지만 남구 같은 데는 3년 연속 연수를 안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약 7천만원을 정말 어려운 이웃에 기부를 했는데 우리 북구는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연수 다 갔다왔단 말입니다. 한 6천몇 백만원 들여가지고. 그런 의원님들의 자세에 우리가 그냥 1.4%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걸 인상을 시켜주고 오케이해주면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와서 그래도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9대 때는 정신차리고 잘 해달라, 이런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하여튼 2.55% 정도의 어떤 마이너스 점수는 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확실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보면서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여파가 있을 수 있다보니까.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봉사라는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은 결국 구민을 위해 봉사로서 나오게 되신 분들이다보니까 사실 배경 이런 것보다는 사실 봉사를 대입하고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념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산술적인 계산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를 뒀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왜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체가 많이 있는 기업 공단이 많이 있는 그런 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라든지 추가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북구가 과연 기업체 유치에 유리한 지역인가 사실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북구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풍족하게 계속 지내왔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습게도 15페이지에 보시면 구·군별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분명히 감소가 됐어요. 마이너스 1.1%라는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에서 왼쪽을 보니까 결국 구·군별 의원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되는 구·군별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거의 상급에 2등이거든요. 2등. 구의원마다 담당하고 책임져야 될 주민 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요청해야 될 부분은 봉사의 개념이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움직여 달라는 개념인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급여의 조정으로 해서 제한을 거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일한 금액이라든지 어떤 그 정도 금액을 할당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부담시키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봉사의 개념과 일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인상 이유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 인상해야 되는지를 삭감의 이유에 대한 것은 어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인상을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왜 인상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연구 활동이나 의정활동이 미흡해서 어떤 불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인상이 되어야 된다, 그 외에 그냥 타 지역구의 현황이 이러니까 맞춰줘야 됩니까가 아니라 인상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주민 수 근거에 대한 할당으로 하면 똑같이 복구청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더 월급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타 지역보다 높아져야 됩니다. 더 열악하니까. 공장의 문제도 있지만 법인세 문제도 있지만 복구는 복지예산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예전에 어떤 사회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다 이쪽으로 이주되어 있다보니까 그 복지 예산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복구에만 유일하게 국비를 따와도 문화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비를 따와도 그걸 이제 상시적으로 운영할 게 없어서 금정구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복구는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 국비를 따와도 예술센터 건립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악하게.

아까 공무국외연수 잠깐 언론에 한번 찾아보셨는지 제가 논외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인상이 왜 돼야 되는지 필요한 게 이거에 대한 의정 활동비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특혜, 권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매년 공무국의 연수를 저희가 활동하시라고 지원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삭감 없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매년 그것도. 그래서 지원은 저희가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타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한계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 주민들에게 주는 것들 수영구는 몇 번 주고 해도 복구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만들 어떤 열악한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데 구의원들은 봉사든 어떤 역할을 떠나서 어떤 희생과 어떤 부분을 감내하고 어떤 능력치를 보여줬는지를 그래서 그게 인상률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주장하는 거는 지금 수영구 같은 사례 비교해 보면 재정 자립도 좋고 그렇게 코로나 지원금도 다 주는데 인상률이 높지도 않고 우리하고 비슷했다는거죠 예전에. 그런데 복구는 왜 인상을 해줘야 되는지 주민들에게 당연히 지원해야 될 것들을 재정 자립도 때문에 못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들과 설명들이 있어야 우리가 생산적인 논의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추세가 이렇게 됩니까가 아니라 피상적인. 동향 이게 중요한지 어떤 동향은 50%를 인상하자는 지역도 있었어요 대전 같은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제대로 한번

이 위원회가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참여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좀 제대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중간에 중간 결산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복구에서 한번 제대로 이루어져서 되고 이후에도 공무 국외 연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되도록 주민들이 조금 평가할 수 있도록 관례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방향이고 인상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말씀하시고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결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피상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갖다대고 있는 척도의 자체가 감액을 위해서 갖다대는 기준 자체가 지금 대상 자체가 어긋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정활동 평가위원회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 위원) 그런데 위원님 결정 시 고려사항에 의정활동 실적을 가지고

(○○○ 위원) 4번에 나와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이란게 순수하게 자치법규 현황, 회기일수 같은 정량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얘기를 하다보면 정성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적인 부분들은 듣는 것에 따라서 많이 어떤 생각이 좌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지금 대상도 아니고 이전 것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4번 항목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이 과연 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것 풀어서 옳은 항목인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 위원) 그런데 보통 모든 보조금 심의 사업이라는 게 실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동결이라든지 삭감에 대한 의견들은 나름의 근거에 대한 기준들을 많이 얘기를 하였고 인상을 왜 해야 되는지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인상에 대한 요인에 대한 것을 무엇이 미흡해서 이렇게 의정활동이 미흡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 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인상이 되느냐 감액이 되느냐 그게 나야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엄청나게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방향이 결정된 다음부터 해가지고 퍼센테이지 얘기할 때 조정이 될 수 있

는 부분들이지 지금 상반된 이런 상황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번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상반되기 때문에 왜 인상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례별로 좀 있어야 저희가 이제 가능하다는게 막연하게 그냥 의정활동하시고 힘드시니까 다른 구의 추세 이렇게 막연하게 논의하기에는 결정하기에는 더군다나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례들을 좀 해주시면

(○○○ 위원) 저는 다른 구의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고요. 담당하고 있는 주민 수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해드리자, 해드리자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일단 지금 인상은 몇 프로를 할 거냐 아니면 삭감은 몇 프로를 할 거냐 퍼센트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니까

(○○○ 위원) 일단 인상, 삭감 표결부터 해보시죠. 이게 과반으로 결정나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과반이 되면 열 명 중 여섯 명이죠? 여섯 명이 되면 일단 결정입니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퍼센트를 다시 논의할 겁니다.

(○○○ 위원) 잠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번 표결이 끝나고 나면 의견이 조금 개선하시는 분 위주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한 분 한 분 의견을 짧게도 좋고 하실 말씀 많으면 두 배도 좋고 한 마리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삭감, 인상 두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는데 표결을 해서 과반수 6명 이상 나오면 일차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최종 결정이 되려면 3분의 2인 7명이 되어야 그때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준비해왔습니까? (용지 배부)

용지 다 받았습니까? 1안은 삭감입니다. 2안은 인상입니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까? 1안 삭감이고 2안 인상입니다. (위원 기표)

(○○○ 위원) 이 결정은 3분의 2입니까?

(위원장) 아니, 최종 결정은 3분의 2입니다. 이것은 과반입니다.

(○○○ 위원) 그건 어떤 규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거는 어딜 가도 표결하면 거의 다 과반이 아닙니까?

(○○○ 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것도 3분의 2로 그러면 일단 인상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는 게 아니고 3분의 2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속 의견 비율에 있어서 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서 안을 다 삭제했는데 최종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의결정족수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심의사항은 2023년도부터 4년간 지급할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지금은 과반이죠?

(위원장) 예, 과반입니다. (투표용지 회수 및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1안 삭감이 4명, 2안 인상이 6명으로 제2안 인상안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아시다시피 금액 결정은 의결사항으로 7명이, 3분의 2가 찬성되어야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2안 인상안에 대해서 인상을 할 거면 몇 프로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0.1% 제안합니다.

(위원장) 예, 0.1%요. 다음 위원님들은?

(○○○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이걸 조정을 할 때 네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사항은 뭐 그렇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세 가지 사항을 놓고 보면 결국은 재정 능력은 마이너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두 사항은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

닌가.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이고 이게 물가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활동비라고 하는 게 보면 내가 생활비로 쓰는 것은 집에서 생활해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하면 돈이 안 들고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면 이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가 1.4% 오른다고 하는데 그 정도에서는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또 합리적이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퍼센트는요?

(○○○ 위원) 1.4%. 물가 오른 것도 반영했으면 좋겠지만은 재정 능력이 또 그렇게 안 된다하니까 그것까지는 고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 위원) 예, ○○○ 위원님 말씀처럼 1.4% 인상하는 데 찬성합니다.

(위원장) 예, ○○○ 위원님

(○○○ 위원) 저는 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예, 의견없고. 다음 ○○○ 위원님

(○○○ 위원) 저도 특별히 말할 건 없습니다.

(위원장) 예. 다음 ○○○ 위원님

(○○○ 위원) 저는 조금만 있다가요.

(위원장) 예. 다음 ○○○ 위원님

(○○○ 위원) 예, 저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예. 다음 ○○○ 위원님

(○○○ 위원) 저도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 명단이 홈페이지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회유하는 이런 전화를 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저 또한 그런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런 게 과연 없었으면 어땠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상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예. 다음 ○○○ 위원님

(○○○ 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요. 위원들이 결정하는 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그럼 마무리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걸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종 한 개 안에 7명, 3분의 2가 찬성이 되어야 결정이 됩니다.

(○○○ 위원) ○○○ 위원님 아까 말씀을

(○○○ 위원) 아 예, 너무 많아 가지고.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것도 다시 무기명으로 할까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결이 안되니까

(○○○ 위원) 안이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가지고 표결하면 안 됩니까?

(○○○ 위원) 표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다 뒤져봤는데 공무원 봉급 인상 1.4%가 전국적으로 대세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안면 받히니까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여기 솔직히 비밀 투표를 한들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다 거기 따라가는 거지요.

(위원장) 나머지 위원님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위원) 아니요. 저는 있습니다. 0.1%. 인상을 말씀하셨으니. 저는 공무원 인상에 대한 것들도 근거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의정활동은 활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아무것도 이제 5개월 동안 보여준 것도 없고 하신 거라고는 공무 국외 연수하신 것밖에 없어요 한 5천만 원 넘게 그것도.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많은 문제 지적해도 구민의 말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당선되면 그냥 다 이렇게 전혀 뭐 구 예산 써도 되는 게 자기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회를 존중해서 인상이 있다면 저는 0.1% 상징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부산시 내지는 이렇게 좀 저희가 경각심을 해서 정말 제대로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모범이 돼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돈이 안 되니 피곤하니 안 하시든지. 지금 선거구제가 개편이 안돼서 그렇죠. 하고 싶은 구의원들 정치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데 거대 양당 때문에 못하고 있는 청년들 아니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나오면 다 되는 게 구의원이에요 그냥 공천 주고. 그래서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시면 되죠 역할을.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정말 강력한 지방자치의 의미도 그렇고 경종을 우리 위원회에서 울려야 한다. 예전까지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어떤 의원의 권력이든 집행부의 권력에 따라 시민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정도 위원회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0.1%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위원) 2개 안이 나왔으니 표결을 하시지요.

(위원장) 안은 2개안 0.1% 인상, 그다음에 1.4% 공무원 보수인상률, 2개안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안을 0.1%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안을 1.4%로 하도록. 이걸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 위원) 투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이 부분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다보니까 명확하게 의견이 나와 있는 투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장) 1안은 0.1%입니다. 2안은 1.4%입니다. (의원들 기표)

(○○○ 위원) 0.1%는 그렇게 하고 2~3년은 실질적으로 동결인거죠?

(기획팀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다음 안건에서 심의합니다.

(투표용지 회수, 개표)

(위원장) 투표 결과 1안 2안 동수입니다. 5대 5입니다. 이것은 가부가 아니니 가부면 부결로 보는데 동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될 때까지 해야죠. (위원들 웃음) 결정될 때까지 해야죠. 일곱 명. 일곱 명이 어디 갈 때까지 오를 못 가요.

(위원장) 가부를 했을 때는 가부 동수일 경우에 부결로 보는데 이거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금액이기 때문에

(○○○ 위원)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아무도 못 갑니다.(웃음)

(○○○ 위원) 근데 그냥 바로 하기에는 똑같을 수 있고 한 쪽 한 쪽 1안 2안 이렇게 의견을 한 번씩 또 설득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냥 하면 똑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양 쪽 의견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만 하고 시간도 걸리니까 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위원장) 용지는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좀 몇 장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 위원) 저는 의견이라기보다 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과반이 나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인상할 수 없다는 거. 여러 가지 인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채찍질이 필요하면 채찍질이 필요한 거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가 필요한 건데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기능을 역할을 해야 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외부에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외부 주민으로서 참여하는 거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다 심의의결하시면 되죠 자기들 것까지. 무조건 다 인상시켜드려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 위원) 저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엄청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했는데 저도 뭔가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쯤은 뭔가 좀 물리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수락을 하고 동참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생각은 정말 마음속에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여기 와서 절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들 그래 구의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한번쯤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물가 상승률. 사실은 지금 구의원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무보수 명예직 이렇게 출발해서 이게 계속 바뀌어서 지금은 어찌면 자기의 전업처럼 되어 버렸고 또 거기에 구의원한테 주어지는 권한들이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니까 구의원

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시각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0.1% 이진 동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구의원들한테 한 번 정도 경각심을 주는 게 나쁘지는 않다는 게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정말 난상 토론이 꼭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 상황이 예전하고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구청과 행정하고 의회가 같이 맞붙는 그런 상황이 딱 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래 구의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주민소환제 같은 게 없는 이상 우리 구민이 구의원을 좀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구민들은 구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런 데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잘해라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보여줘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의원이 우리가 자꾸 여기 와서 말을 못하니깐 구의원을 뽑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다 와서 너네 이거 월급 이거 받고 이래 일해서 되겠나 이거 구민들이 다 와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대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구의원들도 좀 이런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듣고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건의 조례가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평균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구민들도 이제는 구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가고를 따져봤을 때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과연 1.4% 금액은 얼마 아니죠, 얼마 아니지만은 올려주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정말로 0.1%를 상징적으로 해서 당신들과 우리 고통을 같이 하자 이런 게 맞는지는 그냥 서로 양심에, 그냥 이웃에 있는 내 아는 형님이 구의원이니깐, 내 아는 동생이 구의원이니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래도 야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는데 그래도 구민들은 성숙된 의식은 있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지 그냥 1.4% 인상에 쫓 따라서 그냥 먹고 살지도 못하면서 구의원 월급은 올려주네 이런 구민 의식을 저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옳은지 그건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경종을 울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분은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될 때까지 하든지 해봅시다. 저도 자꾸 오기 그렇습니다.(웃음)

(○○○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0.1%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럼 동결이나 삭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게 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저는 동결하거나 삭감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이지, 제가 여기에 저 말 뜻에 동의를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구민의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 위원)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만 하는 게 의정 활동인지 나머지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전부 다 봉사 자세로 전부 다 해야 합니다. 봉사라 하는 게 그러면 조례 제정만 하는 게 봉사인지 나머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럼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객관적인 평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보니까.

(○○○ 위원) 제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여기에 수락하고 들어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의회가 조례를 바꿔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고문직을 조례를 바꾸면서 자기들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여기에 열변을 토하냐면 주민자치회라는 의견 수렴 기구가 동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는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서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86건의 조례가 발의된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동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구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안 합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하면 구 의원은 우리가 뽑은 소통 창구입니다. 구의원들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해도 저는 계속 삭감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구의원들이 국제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3개 정도 동을 관할하다보니까 한 달에 회비가 한 15만원, 20만원 나간다 그게 부담스럽다고 그랬어요. 지금 회의 참석하려는데 그 회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세금 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구의회의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합니다. 딱 막아버렸어요. 우리 구민들은 동에서는 그럼 어떻게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또 구의회 모든 일들을 당연히 우리는 받아볼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소통을 막는데 제가 인상에 찬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구의원들의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들은 동의 소식을 가져가서 구의회에서 활동을 해야죠. 야 3동에는 이런 일이 있더라, 2동에는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빨리 조례 만들자 아니면 이거는 좀 빨리 바꿔줘야 되겠더라 이런 일을 하라고 구의원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딱 막고 당신들하고 소통하고 한 달에 5만원씩 내 회비 내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못 하겠다 그럼 뭐하러 구의원합니까? 하지말고 돈 벌러 차라리 회사 다니든지 안 그러면 장사 하죠. 나는 그런 의식을 가진 구의원들한테 정말로 경종을 울려야 된다 생각하고 난 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9대째라도

그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동에서 일어나는 의견들을 수렴해 가서 그걸 의정에 반영하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막고서 구의원을 하겠다는 게 그게 정신이 바로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동에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내가 정 맞는 소리를 하냐하면 잘못된 건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지금도 나는 그 조례는 바꿔가지고 주민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없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정치하라고 구의원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소통을 해야죠.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9대 때는 그 조례를 바꿔서 다시금 주민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1.4%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인상시켜주고 그렇게 가면 아니 구민들은 뭐니까?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됐다 생각해서 여기 들어왔고 저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구의원한테 욕을 먹지만 저는 할 얘기를 하고 갑니다.

(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지배부)

(○○○ 위원) 위원장님 3분의 2 찬성한다는 규정이 이렇게 해보면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 회의 다시 소집해야죠.

(위원장) 1안은 0.1%입니다. 그다음에 2안은 1.4%입니다. (위원 기표)
(용지 회수)

(○○○ 위원) 제가 1차 때 사실 조금 결정을 웬만하면 했으면 했거든요 사실은. 다들 안면이 받히지 여기 다 어느 정도 높이 계시는 분들이 다 위원으로 섭외가 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거 없이 형식상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각자 입장도 있으시고 이래서 그랬는데

(위원장)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요

(○○○ 위원) ○○○ 위원님

(○○○ 위원) 네

(○○○ 위원) 전의장님이시니까 제가 공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잘하지 어찌 자랑할 게 이렇게 없습니까?(웃음) 의장님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구의원님들 뭔가를 다들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말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못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아닙니까.

(○○○ 위원) 아니 8대만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다들 오래 사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 위원) 맞죠. 8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1대 2대 3대 4대부터 꾸준히 지금 이게 묵혀 있다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 위원) 점진적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7대 의회를 비교했을 때 8대 의회는 상당히 성숙되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이 소신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거죠. 그런데 그 소신적인 의사결정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반하면 그게 이제 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나 못하나 이런 쪽으로 이제 되어지니까 저는 과거에 어떤 조직에 있을 때 10개가 나왔을 때 그 6개 이상을 잘하면 잘하는 거다. 왜 내하고 이해관계에서 안 맞으면 거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위원님 입장에서는 백번 맞아요. 맞는데 정부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회는 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게 권고안이 내려왔고 그래서 의원들이 그러면 주민자치회 빠지라고 그걸 또 먼저 시민단체가 그 안을 또 요구한 거예요. 정부에다가. 시민단체가 의원들 빠지라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다섯군데인가 여섯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그럼 그쪽에는 의원들이 빠지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들 들어가면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양쪽에 형평성 고려해서 정부 권고안을 받아들이자 이래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도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 권고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안 됐는데 ○○○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히 가능한데

(○○○ 위원) 일단 결과 나왔으면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네, 일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역시나 5:5입니다. 어떻게 했으

면 좋겠습니까?

(○○○ 위원) 아니면 이거를 간격을 좀 줄여서 퍼센테이지를 하는 방법이. 이 끝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인거고

(○○○ 위원)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1% 정도 해서 합의를 합시다. 이게 왜냐하면 5대 5니까 1.4의 절반을 딱 하면 웃기고 그냥 1% 정도에서 우리 지금 국민의 뜻이 이렇다 이 정도선에서 회의를 마치는게 좋지 않을까요? 계속 가면 이대로 계속 갑니다.

(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사실 언제까지 회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 위원님께서 말씀이 지금 이 두안을 절충해서 절반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적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1%대를 가지고 통과하는 쪽으로 안을 잡아보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저는 그러면 중간에 딱 0.7%로. 5대5니까 민주적으로 중간으로 하는게

(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투표해볼까요?

(○○○ 위원) 말씀이 어려우시면은 진짜 바로 그냥 동결하는 게 편하고 이거를 어쨌든 표현을 해주세요. 내가 동결하는 게 맞다하지만 이렇게 얼굴 대놓고는 어렵다

(위원장) 네. 저도 위원장으로서 좀 전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이 안 되면 1%대로 서로 의논해서 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이왕이면 0.4% 차이인데 다 해주면 좋겠지만 1안, 2안 결정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투표해볼까요?

(○○○ 위원) 그렇게 하시죠. (투표용지 배부)

(위원장) 네. 1안은 절반 0.7%입니다. 2안은 1%입니다. (위원 기표)
(용지 회수, 개표)

(위원장) 예.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1안은 재적위원 10명 중에 2명입니다. 2

안은 1% 총 8명입니다. 그래서 2안 1%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내 1%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만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 안건입니다. 안건번호 제5호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의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의 월정수당을 첫째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으로 동결할 것인지 둘째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하며, 인상할 경우에는 매년, 격년, 단일연도만을 적용할 것인지 인상 시기와 보수인상률 몇 프로를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나 하면은 좀 전에 2023년도 월정수당을 정했습니다. 1%로. 그다음에 2024년~2006년을 그대로 동일할 것이 이 1%를.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것인지 그겁니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게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정한 지금 월정수당에 있어서 1% 인상하기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1%로 할 것인지 아니면 0.5%로 할 것인지 그 말입니까?

(위원장) 맞습니다. 결정된 1%입니다. 1%를 그대로 동결할거나

(○○○ 위원) 지금 1%를 2024~2026년 적용할 건지가 1안이고 2안은 전년도 보수인상률을 계속 적용을 해서 인상해줄건지

(○○○ 위원) 아니 지금 그거 아니구요. 지난번 기준으로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이때까지 보면 공무원 인상률로 해서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적용을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1년차는 동결을 했고 2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공무원 인상률로 이렇게 적용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팀장) 네, 참고로 2018년도 의정비 심의 때는 동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3년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일단 1안, 2안이든 이걸 결정을 해야 아까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인상 시기라든지

(위원장) 동결로 가느냐 아니면 인상하느냐. 그것도 표결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용지 준비됐습니까?

(기획팀장)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비 동향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따로 3년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금 8개 구에서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은 한 해만 인상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 한 해만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25년 한해만 인상하면 2년 뒤에 다시 하겠다는

(담당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뒤에 한다는 게 아니라 '23년도에 결정된 금액을 '24년도에도 동일하게 받고 '25년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이 되고 '26년에는 '25년 금액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가 '25년 한 해만 인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23년 '24년 금액이 같고 '25년 '26년 금액이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 위원) 절반. 중간 중에 한 번만

(담당자) 네. 중간에 한 번만 올리겠다.

(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1%로 인상하는 거 이게 인상으로는 이게 최저거든요. 부산시와 16개 구·군 중에. 아마 우리 의원들에게 큰 경각심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해부터 24년부터 26년까지는 다른 의회도 하는 것 같이 전년도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경각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 중 하나지만 또 우리가 채찍을 줬으면 당근도 또 쥐가지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는 게 그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다음분

(○○○ 위원) 그런데 저는 참 의문이 드는 게요. 여기서 1%, 1.4%에 왜 이렇게 의원님들이 집착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금액도 크지 않고. 이게 마치 자존심과

권리인 것처럼 인상돼 가야 한다는 게 이게 계속 들수록 의문이 드는 게 아 정말 공 고하게 이 기득권을, 0.4% 하는 게 왜 이렇게, 지금 주민의 의사들은 다 분위기는 다 파악이 됐다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 정도 섭리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데. 왜 이게 0.4%를 또 인상안으로 이렇게 고집하시는 건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냥 능력과 일로서 잘 평가를 받고 그렇게 의정 활동 마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0.4%에 왜 이렇게 마치 뭔가 박탈된 뭔가를 이렇게 고집하고 의원 들 전체를 이렇게 하는지 상당히 조금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가 이런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1%면 그냥 쪽 1%로 이렇게 하겠다이랬는데. 이렇게 이 위원회에서의 전반적인 질의와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런 것 같아요. 뭘 하든 우린 당선자고 거기에 대한 표현을 우린 하면 된다는 의식이 지금도 그냥 계속 전달되는 것 같아요.

(○○○ 위원) 이걸 좀 바꿔라 하십시오. 국회에 들어가셔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와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 봤자 실제로 저는 보면 이게

(○○○ 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추천 들어오는 외부위원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시면 정말 저희 소모적인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0.4% 때문에 이런 소모적인 이런 걸 또 얘기해서 투표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니 하고, 하니까 그 0.4%를 가지고 열심히 잘 이렇게 하시고, 목숨 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 위원) 저희가 1% 어렵게 정했으니 2안은 제 의견은 매년 똑같이 1% 결정된 걸로 인상하는 걸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저도 하여튼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 동의합니다. 고민해서 정했는데 또다시 한다는 게

(○○○ 위원) 매년 1%로요?

(기획팀장) 매년 1%가 아니고 전년도 보수에 보수 인상률이 적용되는 겁니다.

(○○○ 위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1% 전년도 1.4% 올라가지 않지만

(기획팀장) 1% 올라가는 금액에서 보수 인상률이 그만큼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 위원) 여기 정해진 1%가

(기획팀장) 네

(○○○ 위원) 그러니까 1%는 그냥 베이스로 해가지고 증가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저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할 것이냐 그 인상률의 절반을 적용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까?

(기획팀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결을 할건지, 2024년 2025년 2026년 동결을 할건지 아니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건지 아니면 격년으로 인상할건지 그걸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1%를 정했을 때 그게 보수 인상률 범위 내면 1%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보수 인상률 범위를 초과했으면 보수 인상률 범위로 제한되고 이렇게는 의결이 안 되는 건가요? 될 것 같은데 이걸 봤을 때

(기획팀장) 전년도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으로 지금

(○○○ 위원) 아 그거는 동일하고 그럼 인상 시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기획팀장) 네 그게 매년 똑같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오늘 한 2023년도 금액대로 그대로 동결할 건지,

(○○○ 위원) 아 동결은 알겠고 2안에서 보면 이제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매년, 격년, 우리가 정하는 연도 이렇게 해서 또 정할 수 있다 그죠?

(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잠전에 ○○○ 위원님 말씀은 오늘 결정한 1%를 매년 적용해주자고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 위원도

(○○○ 위원) 예. 정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위원장) 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 근데 팀장님 말씀은 그게 안된다는 말 아닌가요?

(위원장) 아니 지금 말해서 공무원 보수가 0.8%가 인상됐다면 이 1%로 하면 안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기획팀장) 네. 전년도 보수

(○○○ 위원) 인상시기만 정해야 되는 겁니까? 동결 아니면 인상시기만

(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인상이 된다면 인상 시기

(○○○ 위원) 일단은 동결이나 인상이냐를 정하시고

(○○○ 위원) 동결하면 동결로 가는거 아닙니까?

(○○○ 위원) 그건 아니고 동결하면 2023년에만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계속 같은 금액을 받는 겁니다.

(○○○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동결이나 인상이냐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동결 되면 그거고 인상이면 다시 이제 시기를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그럼 아까 전에 동결로 한다는 것은 지금 말해서 1% 올린 1% 동결을 말하는거죠 그죠? 그걸 4년 동안 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인상 수준에 맞춰서 인상한다는 그 두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겠네요.

(○○○ 위원) 일단 동결, 인상으로 먼저 결정을 하시죠. 인상은 정해지면 시기랑 인상률은

(위원장) 일단 동결하고 인상안을 가지고 2가지 안을 가지고 합시다.

(○○○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 5분만 하지요? 1시간 반을 앉아있었는데

(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앉아계셔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위원장) 회의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월정수당 1%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월 238만 5600원입니다. 연 2862만 7200원입니다. 그럼 일단 두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합시다. 동결을 하면 4년 동안 계속 1%씩 동결입니다.

(○○○ 위원)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팀장) 동결로 정하게 되면 오늘 정한 1% 금액으로 2024, 2025, 2026년까지 똑같은 금액을

(○○○ 위원) 9대 때 계속 1%를 적용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위원) 아닙니다. 오늘 정한 금액이 4년 간다는 겁니다.

(○○○ 위원) 아 예.

(위원장) 인상은 %를 하지 말고 일단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관해가지고 인상한다 라고 되어있으니깐 공무원 보수 인상률 1안 2안 넣도록

(○○○ 위원) 이게 지금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 동결한다면 오늘 정해진 금액이 예를 들어 1% 올라서 만약에 240만원이라고 치면 240만원이 4년 동안 그대로 간다는 거고 2안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면 2023년도에는 1% 오른 것이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적용된다 그 얘기죠?

(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적용할 수도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을 반영한다든지 그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또는 인상률의 2분의 1만큼 한다든지

(위원장) 그러면 3안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거는 2안입니다. 3안에

(○○○ 위원) 동결, 인상을 일단 결정하시지요.

(위원장) 네. 표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 위원) 계속 무기명으로 하시죠. (투표용지 배부)

(위원장) 1안은 동결입니다. 2안은 인상입니다. (위원 기표)
(투표용지 회수)

(위원장) 이것도 아까처럼 과반이 되면 일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총 10명 중 4명입니다. 2안은 인상입니다. 10명 중 6명. 일단 2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2안으로 일단 됐으니까 저희들이 1%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공무원 인상 범위 내에서 한 71% 정도 됩니다. 인상률의 71%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될까 싶습니다.

(위원장) 매년

(○○○ 위원) 네.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4%라 하면 71%면 1%가 됩니다.

(○○○ 위원) 아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매년 달라집니다.

(○○○ 위원) 매년 달라지면 달라지는 요율의 71%로 한다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 위원) 퍼센테이지로도 쓰나요?

(기획팀장)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수 있으면

(○○○ 위원) 상관없네요?

(○○○ 위원) 예를 들어서 1.4%라고 하면 1% 되면 71%입니다. 그러니까 2%로 되면 좀 더 높아지겠죠. 71%한 금액이

(○○○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71%라는 금액이 이해를 못해서요.

(○○○ 위원) 그게 뭐냐면요. 2% 인상됐으면 2%의 71%하면 1.4% 되니까

(○○○ 위원) 1%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71%를 적용한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그렇게 정했는데 그다음에 또 뭘 그보다 더 올린다, 내린다 이거는 좀

(○○○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로 하고 1% 단,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 초과해서 1.9% 이상이면 1%로 인상을 하면 되고, 만약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0.8%밖에 안 된다 그러면 0.8%가 되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그 안에 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 일단은 최종 결정되는건 의견에 따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5% 인상이 됐는데 의원은 1%로 하면 그건 차이가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조를 하셔서 1%로 딱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공무원 인상률만큼의 결정은 거의 찬성할 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 위원님 71%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인상률에 그 금액도 이제 같이 가는 거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 만약에 1%가 안 오르면 거기에 또 71% 하면 되니까 이제 더 작게 받겠죠.

(○○○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1% 올린 거를 다른 구·군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동구, 중구가 10%, 12.5%로 올려도 북구보다는 낮아요. 11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낮을 것 같지는 않고 그게 싫다하시면 격년 해가지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한번 부산시처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 위원) 재정자립도도 자꾸 갈수록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항상 1% 거의 초과할 것 같은데 앞으로 봤을

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그러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 위원님께서 매년 1%를 해서 하되 공무원 인상률이 1% 미만인 경우는 거기에 준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1안이고 또 2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다, 그럼 두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할까요?

(○○○ 위원) 아닙니다. 71%.

(위원장) 그게 1% 아십니까? 71%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 위원) 보수 인상률이 1.4%로 지금 공무원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1%를 결정했잖아요. 1%대가 71%니까 내년에 임금이 이제 오르게 되면 그 임금의 71%를 적용시켜서 인상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도 합리적인 생각이 아까 1%, 5%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 위원) 위원님 말씀이 안 맞는게 선출직하고 공무원 왜 같이 잡아야 한다는 규정이, 근거가 있습니까? 그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그걸 기준을, 요건에 우리가 뭔가 있나요?

(○○○ 위원) 근거가 있는게 아니고 시민이 제안해서 의원들이 다 동의한 거예요.

(○○○ 위원) 안되는 이유가 의견에서 공무원 인상률이 5% 되고 1%라면 격차가 많이 난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 위원) 그러니까 저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 위원) 아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 위원) 아니 저기서 말씀하실 때

(여러 위원 말함)

(○○○ 위원) 정리를 조금. 다른 안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2개 안을 올려서 하시면 되잖아요. ○○○ 위원님께서하고 ○○○ 위원님께서하고.

(○○○ 위원) 71%, 1% 두 개안으로

(○○○ 위원) 최대 1%가 되는거죠. 이해만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네. 그러면 1안은 매년 1% 인상. 단,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 미만일 경우에는 공무원은 보수 인상률에 따른다. 그 다음 2안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1%를 인상한다. 이렇게 투표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투표용지 배부)

(위원장) 1안이 1%입니다. 2안이 71%입니다. (위원 기표)

(용지회수) (개표)

(위원장) 오늘 심의위원회가 진짜 우리 복구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다른 구에서는 제가 안 가봤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안하고 결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러 위원 발언)

(위원장) 투표결과 1안이 총 7명입니다. 2안이 3명. 1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다른 안건 없지요? 그럼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상정안은 매년 1% 인상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에 준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위원 여러분 1, 2차 이렇게 심도있게 참 논의해 주시고 장시간 이렇게 논의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